

# 민부격차 커지는데...소득계층 상승 갈수록 어렵다

### 통계청 '소득이동통계' 첫 발표...부자·빈곤층 고착화 심화 광주·전남 70~80%, 1년 후에도 소득 최상·하위층 유지 소득계층간 이동 대부분 증산층...하향이동 상향보다 많아

갈수록 소득 격차가 심해지고 계층 간 이동도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산층 이하에서는 소득이 감소하며 더 아래 단계로 하락하는 경우가 빈번한 반면 고소득층에서는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가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17~2022 소득이동통

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소득 1분위(하위 20%) 지역민 10명 중 7명이 전년과 비슷한 소득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5분위(상위 20%) 고소득층은 10명 중 8명이 상은 소득 최상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집계됐다. 또 광주·전남 전 소득층에서 소득 계층 간 상향 이동보다는 하향 이동이 더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이동통계는 사회이동성 개선 및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동시장에서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의 이동성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한 자료로, 올해 처음으로 작성됐다.

지난 2022년 광주시 소득분위별 유지비율은 고소득층인 5분위 계층이 86.1%로 가장 높았다. 이어 1분위(71.2%), 4분위(66.7%), 3분위(58.0%), 2분위(49.0%)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에도 소득이 상위 20%였던 5분위 계층 10명 중 8명 이상은 다음해에도 소득 최상위층이었고,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 지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다음해에도 소득 최하위층이었다는 것을 뜻한다.

5분위 계층의 소득분위 유지 비율이 높은 점은 소득 상위 20%에 진입 자체가 어렵지만, 진입한 뒤에는 일정 소득이 유지되는 경향을 보여 쉽게 하위 계층으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소득 1분위 계층 역시 계층 유지 비율이 높은 만큼, 지역 소득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간 민부격차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남 역시 지난 2022년 기준 소득 계층 유지 비율은 5분위가 86.1%로 가장 높았다. 이어 1분위(76.0%), 4분위(66.8%), 3분위(57.4%), 2분위(50.8%)를 기록해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지난 2022년 광주와 전남 소득분위별 계층 간 이동한 비율은 각각 34.6%, 33.0%를 기록하면서,

전국 평균(34.9%)을 하회했다. 광주·전남 모두 소득계층 간 이동은 대부분 2~4분위 증산층에서 일어났고, 상향 이동보다는 하향 이동이 더 많았다. 이는 지역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전년보다 좋아지는 경우보다 안 좋아진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것을 뜻한다. 광주는 지난 2022년 기준 소득 계층 간 상향이동이 17.0%, 하향이동이 17.6%를 기록했고, 전남은 상향이동 16.1%, 하향이동은 16.9%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통계청은 국제청 소득자료(근로·사업) 등 데이터를 결합해, 1100만명의 표본에 대해 패널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이번 소득이동통계를 작성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광주시, 민주노총 광주본부 하남산단 이전 철회

### 강기정 시장 기업들 면담후 백지화

광주시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광주본부의 하남산단입지공단지 이전(광주일보 11월 18일 9면)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산단 내 기업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전을 강행하다가 지역 기업인들의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최근 강기정 광주시장에 하남산단입지 기업인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하남산단이 아닌) 새로운 공간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최근 광주시의 민주노총 사무실 임대료 지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내놓고 후속조치를 요구한 데다, 광주시의회가 하남산단복합리모델링 비용을 전액 삭감한 것도 철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광주시와 하남산단 등에 따르면 시는 민주노총 광주본부의 하남산단 이전을 백지화하고 시 소유의 새로운 유휴 부지 물색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5월 감사원으로부터 민주노총 사무실 임대료 지원과 관련된 내용 제출을 요구 받은 광주시는 이 같은 지원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민주노총 사무실을 시 소유 건물인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이전을 추진했다.

입주기업만 1000여곳에 달하는 광주 최대 산업단지인 하남산단 내에서는 불안감과 함께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광주시는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에 민주노총이 입주할 수 있도록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입주 공고까지 내리는 공문까지 보내며 이전을 서둘렀다.

그러나 시의회가 5억4000여만원 가량의 복지관 리모델링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이전에 발목

을 잡았다.

또 감사원은 이달 초 광주시의 민주노총 임대료 지원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부적절하다는 감사결과를 내렸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도 요구하면서 광주시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강기정 시장 또한 지난 주 하남산단관리공단 이사진과 입주 기업 대표들과 만나 하남산단이 아닌 다른 장소로의 이전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남산단 관계자는 "기업들은 최근 경기침체로 힘든 상황에서 민주노총 사무실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다"며 "다행히 잘 해결된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체 공간에 대해 민주노총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 유타부티크서 특별한 연말 즐기세요

### 크리스마스·연말 다양한 프로모션

광주 유타부티크호텔-레지던스가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먼저 올해 연말은 크리스마스 이브(12월 24일)와 12월 31일 두 차례 특별한 저녁 뷔페를 선보인다.

크리스마스 이브 뷔페에는 랍스터테일, 관자연어구이가 개별로 제공되며 안심스테이크 등 다양한 고급 요리와 디저트를 맛볼 수 있다. 또 사도네이 화이트와인 1잔이 무료로 제공된다.

12월 31일 저녁 뷔페는 안심스테이크와 랍스터테일이 개별 제공되며 스페셜 뷔페 메뉴와 함께 레드와인 1잔씩 무료로 제공된다. 특히 디너 뷔페는 숙박과 함께 패키지 상품으로 예약 시 할인된 가격을 제공한다. 식음료 프로모션과 함께 파티 패키지도 선보인다.

연인들을 위한 '지금 이 순간 폰오프 패키지'는 스위트 로맨스룸 1박, 2인 조식 뷔페, 폰오프 상무점 할인권과 스몰 플레이트, 어머니티 세트 로 구성된다. 일요일부터 목요일 사이 숙박이 가능하며 스위트 로맨스룸 내 자쿠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으며, 투숙은 올해 말까지다.

'윈터 호캉스 인 펜트하우스 패키지'는 31층 최상층에 위치한 아너스 프레지던셜 스위트룸에서 럭셔리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상품이다.

최대 6인 투숙이 가능하며 객실 내 자쿠지, 사우나, 히노키탕, 스크린 골프장, 노래방, 대형 거실과 주방을 갖추고 있어 연말 파티에 대성공이다. 와인고 과일-치즈 플레이트도 제공한다. 호텔은 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포토존을 설치해 트리 장식 사진을 SNS에 공유하면 숙박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 한은본부 등 16개 기관과

### 중소기업 금융지원협의회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8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등 유관기관 16곳과 함께 '2024년 하반기 중소기업 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

협의회에서는 광주전남지역 경제동향, 기관별 소상공인-중소기업 2024년도 지원실적 및 2025년도 지원계획, 금융지원 협력방안 등이 논의됐다.

참가 기관들은 올해 소비는 완만하게 회복되는 가운데 생산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으며 향후 광주·전남지역 경제는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한 협력강화가 더욱 필요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 각 기관의 지원내용과 내년도 지원계획 실행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역 소재 중소기업 대표들



로부터 자금 조달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시간도 가졌다. 기업들은 최근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체감하는 조달금리는 낮아지지 않고 있다며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최인영 완도물산영어조합법인 대표 '유통대상' 장관 표창

최인영(사진) 완도물산영어조합법인 대표이사 가 지난 17일 열린 제29회 한국유통대상 시상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한국유통대상은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유공자를 발굴하는 행사다.

산통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한 최인영 대표이사는 원초기부터 조미김까지 원스톱으로 생산하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김의 품질과 우수성을 제고하고, 수산물 수출 1위 품목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 대표는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공격적인 신제품 개발로 7개 제품군, 22개 제품을 출시했으며,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으로 매년 수출 증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재회석 광주상의 상근부회장은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역기업들이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혁신을 지속해 온 성과를 인정 받은 것에 대해 매우 기쁘다"며 "더 많은 기업들이 경제발전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고, 노력치 않은 환경에서도 활력을 되찾아 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

## 전남도, 에너지AI 신기술 주도권 선점 나섰다

### 에너지공과대와 에너지 혁신 포럼

전남도가 18일까지 이틀간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KENTECH)와 함께 '에너지AI' 신기술 개발 주도권 선점을 통한 미래에너지 산업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했다.

인공지능을 에너지 분야에 접목하면 데이터에 기반한 전력 수급 관리, 알고리즘을 활용한 송배전설비 최적 운영, 소규모 분산 전원 통합 운영·최적 배분 등이 가능해져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및 한계성 문제를 해결하고, 전력망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에선 인공지능(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마주한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에너지AI'와 융합해 효율적 에너지 시스템을 구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은 켄텍, 한국전력공사, 녹색에너지연구원, 전남TIP 등 유관기관과 지자체 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특강, 학술

발표, 학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전문가 특강강연에선 문승일 켄텍 연구원장의 '켄텍 연구 중장기 발전계획', 김종권 켄텍 에너지 AI 연구소장의 '에너지AI 기술의 현주소와 발전 방향', 한병용 포스코 벤처지원센터 리더의 '포스코 벤처플랫폼 창업생태계 구축 현황' 등이 이어졌다. 또 이석주-구근호-김경모 켄텍 교수가 각각 인공지능 기반 미래에너지 신산업 분야 학술발표를 해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학술토론에선 켄텍 에너지AI 연구소장인 김종권 교수가 좌장을 맡아 '에너지AI 기반 효율적 에너지 시스템 구현'을 주제로 학술 발표자 3인, 김진호 GIST 에너지융합대학원 교수의 열린 토론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에너지 신기술의 중요성을 한층 부각했다. 강상규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에너지AI 신기술 개발이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신속하게 앞당겨 전남이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지역사회공헌 최고등급 획득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4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심사'에서 2년 연속으로 최고등급을 획득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사회 내 비영리단체와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사회공헌의 복지 증진에 공헌하는 활동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심사는 환경경영(E), 사회적책임경영(S), 투명경영(G) 등 3개 영역 25개 지표에 대한 기관의 추진내용을 서류심사, 전문위원 심사, 지역 중앙심의 등 총 3 단계를 거쳐 마무리했다.

이인용 진흥원장은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한다는 경영철학으로 꾸준히 진행해 온 사회공헌활동과 기관운영이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최고등급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전남도 출연기관으로서 도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흥원은 전남의 정보문화산업 육성 발전을 위해 지난 2008년 설립된 전남도 출연기관으로 개원 이래 콘텐츠 및 ICT분야 인력양성과 인프라 구축 등 지역 산업 육성과 생태계 조성에 힘써오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국세청, 광주여성경제인포럼서 세금교육

광주지방국세청이 지난 17일 광주여성경제인포럼에 참여한 광주 여성경제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홀리데이인호텔(별관 3층)에서 '맞춤형 세금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이어 18일에는 여주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여주시 보건소 회의실에서 여주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세금교실은 경기집체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지역 여성경제인과 여수 소상공인을 위해 유익한 세부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문제 해결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법인세 공제감면 권

설명, 기업세제 지원 제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알면 절세 모르면 불이익,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 등을 주제로 각 단계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됐다. 강의를 마친 후에는 여성경제인-소상공인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듣고 개별 질문에 답변하는 현장상담도 가졌다.

박광중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앞으로도 광주·전남북의 여러 경제단체와 실무자 간 개설된 소통창구를 통해 상담회 개최, 세금교실 운영 등을 통해 납세자의 애로-건의사항이 세부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한은총재 올 성장률 하향 전망

### "추경·재정으로 경기 부양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올해 경제성장률이 2.1%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올해 연간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 2.2%보다 0.1%포인트 낮아질 것이라는 의미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물가안정목표 운영 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올해 4분기 성장률을 애초 0.5%로 예상했는데, 0.4%나 그보다 조금 더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저성장 우려를 타개하기 위한 처방으로 "경기를 소폭 부양하는 정도의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그는 "추가 경제재안이나 중요한 경제 법안이 여야 합의도 빨리 통과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84.43 (+27.62)
↑ 코스닥	697.57 (+3.10)
↓ 금리(국고채 3년)	2.536 (-0.085)
↓ 환율(USD) (오후 5시 55분 기준)	1436.60 (-2.30)